

HONGKONG
NEW MUSIC
ENSEMBLE
香港創樂團

Living. Music.



TONGYEONG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統營國際音樂節
ISCM WORLD MUSIC DAYS, SOUTH KOREA

29 & 30.3.2016

Tongyeong Concert Hall, Tongyeong

南韓統營音樂廳

Hong Kong New Music Ensemble & Alumni from The Modern Academy

香港創樂團及現代學院畢業生

PROGRAMME 1 第一場曲目 (29.3)

Joyce Tang: *Reflections on Arirang* (2013)

Rita Ueda: *as the snowflakes return to the sky* (2010)

Annie Hui-Hsin Hsieh: *Into the Outer* (2014)

Jean-Marie Rens: *Monolithe* (rev. 2010)

PROGRAMME 2 第二場曲目 (30.3)

Pierre Boulez: *Dérive 1* (1984)

Nick Roth: *Woodland Heights* (2014)

Raminta Šerkšnyt: *Midsummer Song* (2009)

Balázs Horváth: *Fragmenti v «Ja gulyala veselo»* (2014)

Info 詳情: <http://timf.org>

Press:

음악의 미래를 말하다

2016 통영국제음악제

‘Sounds of Tomorrow’

I
PREVIEW

오는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통영국제음악당에서 ‘2016 통영국제음악제’가 개최된다. ‘Sounds of Tomorrow’를 주제로 하는 올해 통영국제음악제는 마사키 스즈키가 이끄는 바흐 콜레기움 재팬의 고음악에서부터 미니멀리즘을 통해 현대음악을 사람들에게 가장 가깝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필립 글래스까지, 280여 년의 시간을 아우르는 음악들이 펼쳐진다. 또한, 피아니스트 백건우, 첼리스트 이상 엔더스와 소프라노 마리솔 몬탈보를 비롯하여 카잘스 파르티트와 2e2m 앙상블이 포진한 아티스트 라인업도 화려하다. 특히, 폐막공연을 맡은 통영페스티벌오케스트라의 올해 지휘봉은 세계적 마에스트로 크리스토프 에

센바흐가 맡아 그 어느 때보다도 정교하고 화려한 연주를 들려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에 독일문화원과 함께 아시아의 젊은 작곡가들을 발굴하고 소개하는 ‘아시아 작곡가 쇼케이스’와 정가악회가 펼쳐내는 한국 전통의 재해석은 한국과 아시아 음악의 허브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자 하는 통영국제음악제의 행보를 유감없이 보여줄 예정이다. 또한 장 콥트 감독의 영화가 함께하는 오페라 <미녀와 야수>, 첼로 선율에 한국의 전통 춤을 입힌 <브릿징 컬러스>와 스테이지 켄트의 재즈 콘서트는 고음악과 클래식, 현대음악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 보다 쉽고 즐겁게 음악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선물이 될 것이며, 이러한 공식공연 외에도 통영시 곳곳에서 열리는 200여 개의 프린지 공연은 누구나 함께 나누고 즐기는 2016년의 통영국제음악제를 만들어 낼 것이다.

2016 통영국제음악제, 세계 권위 ‘세계현대음악제’와 동시 개최

올 해 통영국제음악제는 그 어느 때 보다 풍성하다. 2016 세계현대음악제(World Music Days)가 함께 개최되기 때문. 세계 최대 규모의 작곡가 네트워크인 국제현대음악협회(ISCM)가 주최하고 통영국제음악재단이 주관하는 ‘2016 세계현대음악제’는 그간 전 세계 현대음악 작곡가들에게 도전의 장이 되어 온 세계현대음악제의 통영유치라는 점에 그 의미가 있으며, 특히 ISCM의 명예회원이었던 윤이상의 고향에서 열린다는데 세계 현대음악계가 주목하고 있다. 작년 9월, 심사를 거쳐 선정된 2016 세계현대음악제의 70여 작품을 통해 통영국제음악제와 더불어 우리시대 세계 현대음악의 흐름을 만나보자. S

글 | 통영국제음악재단 한주연



II

Press Conference

음악제에 앞서 지난 2월 16일 통영음악재단 대표 플로리안 라임과 국제현대음악협회(International Society for Contemporary Music, 이하 ISCM) 한국 섹션 회장 백승우 등이 참여한 기자회견이 열렸다. 먼저 플로리안 라임은 3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열리는 이번 통영국제음악제의 특징은 두 개의 음악제가 함께 열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본 페스티벌인 2016년 통영국제음악제와 ISCM이 주최하는 2016 세계현대음악제(World Music Days)가 바로 그 것으로, 통영국제음악제는 17개의 공연과 1개의 전시로 구성됐고, 세계현대음악제는 11개의 공연과 1개의 설치전시로 총 30개의 프로젝트가 통영국제음악당에서 10일 동안 열려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축제가 완성된다.

먼저 두 음악제가 어떤 성격을 지녔는지 궁금하다.

플로리안 라임 이번 페스티벌의 주제는 'Sounds of Tomorrow'인데, 주제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ISCM이 주최하는 '세계현대음악제'를 이번 페스티벌 기간 동안 같이 유치하게 됐기 때문이다. 먼저 ISCM은 50개국 회원이 모인 네트워크 단체로 현대음악, 동시대음악을 홍보하고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다. 현대음악은 불완전하고, 즐겁거나 아름답지 않을 수 있으나 계속 성장하고 발전하고 있다. 통영국제음악제 역시 여전히 창작되고 만들어지며 완성되고, 찾아가는 과정의 페스티벌이다. 지난 9월 한국, 일본, 독일, 프랑스 심사위원이 모여 500개 곡 중 이번 음악제 기간 중 연주될 70개 곡을 선정했다. 어떤 작곡가는 연주되지 않아 묻힐 수 있고, 어떤 곡은 무대에 올려져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이 페스티벌의 특징이다. 이번 축제기간 중 ISCM 작곡가 중 저명한 작곡가 두 명을 맞이하는데, 바로 20세기 혁신적인 작곡가로 여겨지며 80세를 맞이하는 필립 글래스와 세계에서 작품이 연주되고 있고, 윤이상처럼 베를린에 거주하며 성공한 현대음악 작곡가 중 하나로 여겨지는 진은숙이다. 하이든의 <십자가 위의 일곱 말씀>이나, 바르토크의 <오케스트라를 위한 협주곡>, 바그너의 <파르지팔>은 모두 관현악 역사의 선구자적인 역할을 한 작곡가에 의해 쓰인 작품이다. 이들의 음악은 당대 놀랍고, 낯설고, 평범하지 않지만 새로웠고 시대를 앞섰다고 여겨졌다. 이러한 작품들에서 바로 이번 페스티벌의 주제인 '내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 유네스코에서 음악 창도시로 선정된 통영에서 개최되는 이 페스티벌이 다르길 원하고 흥미롭고 혁신적이기를,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들 어주시기를 바란다.



카잘스 콰르텟



바흐 콜레기움 재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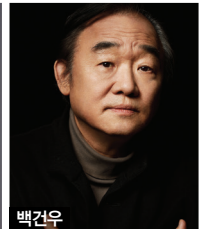
플로리안 라임



필립 글래스



마사아키 스즈키



백건우

ISCM은 어떤 단체인가

백승우 ISCM은 1922년 오스트리아에서 출범한 국제기구이다. 당시 바르토크, 코다이, 힌데미트 등 작곡가들이 현역 시절이 의기투합해서 만들었고 두 번의 세계대전 기간 동안만 제외하고 꾸준히 국제음악제를 개최하고 있다. 본부는 암스테르담에 있고 한국은 1972년부터 회원국으로 가입돼 지금까지 단체를 이어오고 있다.

한국 위원회는 영리를 추구하고 특별한 이념을 갖고 있는 단체는 아니다. 150명의 회원이 있는 순수 학술 단체이다. 한국 역시 본부 흐름대로 총회와 음악제를 개최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범음악제이다. 우리나라는 국제현대음악제와 독특한 인연을 맺고 있는데 한국을 대표했던 1세대 작곡가인 윤이상이 이 협회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했고, 십여년전 돌아가시고 나서 명예회원으로 위촉됐다. 그 이후 강석희 작곡가가 명예회원으로 가입돼 두 명의 본부위원을 갖고 있다. 이번 국제현대음악제가 명예위원의 고향인 통영에서 통영음악제와 같이 진행되는 것은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한다.

ISCM 음악제는 앞으로도 계속 연장되는 것인가? 그리고 다른 현대음악제와 차이점은 무엇인가?

백승우 일회성으로 그치기보다 큰 규모 음악제를 자주 하는 것은 힘들지만 콘서트 면에서는 한국 작곡가들의 작품이 연주될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을 것 같다. 행사, 연주, 예산 등 국내에서 쉽게 할 수 없는 규모의 행사를 이번 음악제를 통해 유치를 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카잘스 콰르텟이 한국 작곡가의 작품을 연주하는 것은 독특한 케이스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큰 오케스트라 편성을 자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다른 음악제들과 차별화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좋은, 수준 있는 작품을 올

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통영이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음악창의 도시로 선정됐는데, 이것이 음악제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플로리안 라임 유네스코는 이케아나 벤츠와 같은 브랜드 네임인데, 이걸 우리가 쓸 수 있게 됐고, 이런 브랜드 네임은 모든 사람이 들으면 알 수 있다.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음악창의 도시라는 이름을 쓰며 사람들에게 다른 이미지를 줄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통영시와 우리 재단은 창의도시간의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다. 유럽, 호주, 일본과 함께 협업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런 기초적인 것 안에서 연주자 섭외가 용이해지고 기본적으로 음악제를 프로모션 하는데 좋은 바탕을 가지게 됐다고 생각한다.

필립 글래스와의 대화는 통영에서만 진행되는 것인데 이 날 어떤 이야기를 나눌 예정인지 궁금하다.

플로리안 라임 매우 어려운 질문이다. 여전히 그에 대해 공부하고 있다. 매니저를 통해서 듣기로는 대화하기 좋은 상대라고 한다. 어떠한 주제로도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데, 음악뿐만 아니라 문화 전반적인 것들, 정치 이야기까지 할 수 있는 좋은 대화 상대로 알고 있다. 역사책도 쓴 사람이라 다양한 주제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인 통영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멤버 주요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플로리안 라임 프로젝트 오케스트라지만 베이스는 TIMF 앙상블이 많고 있다. 작년의 경우에는 큰 단체 두 팀을 섭외를 했지만, 올해는 루체르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와 같이 좀 더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다운 모양새로 진행될 예정이다. 악장은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에서 활동했던 악장이오고, 독일, 스위스, 이탈리아

ISSUE

등지에서 단원들이 함께 한다. 작년에는 아시아 투어가 있어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함께 활동 하는 시간이 좀 길었는데, 올해는 한 번의 연주만 있어서 짧다. 그러나 2017년에는 윤이상 탄생 100주년을 기념해 유럽 투어를 준비하고 있는데, 유럽에서 울리는 윤이상을 통영 페스티벌 오케스트라가 함께 할 예정이다.

몇 개의 프로그램들이 서울에서도 연주되는데, 차별화된 통영국제음악제만의 특징은 무엇인가.

플로리안 라임 서울에서도 열리는 연주도 있고, 단독으로 유치되는 프로그램도 있어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통영이라는 곳 자체가 가지는 독특한 점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작은 도시에서 아름다운 공연장을 지니고 있고, 멀리 떨어져 있는 특성이기에 주말을 이용해 와서 세 네 개의 공연을 집중적으로 보는 것이 특징

이다. 서울에서는 일정을 마친 후 공연을 보기 위해 빨리 식사를 하고 급하게 가야하지만, 통영에서는 천천히 맛있는 음식을 즐기며 여유 있게 음악을 듣고 아름다운 자연을 즐기는 것이 가능하다.

윤이상의 작품이 별로 연주되지 않은 것 같다.

플로리안 라임 다른 해보다 적은 작품들이 연주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겐 충분할 수도, 어떤 사람에겐 불충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내년이 윤이상 탄생 100주년이라 여러 계획을 갖고 있어서 이런 측면들을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윤이상의 작품이 연주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음악제 전체 안에 윤이상의 아이디어들이 반영된 작품들이 연주되는 것, 그리고 그 아이디어와 정신을 드러내고 유지시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유럽과 한국 사이의 브릿지 역할을 했

던 윤이상 작곡가처럼 우리 페스티벌이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현대음악은 여전히 어렵지만, 관객들이 들어보지도 않은 채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는데 뭔가를 찾을 수 있도록, 우연히 좋은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현대음악이 더 쉽게 느껴지게 하기 위해서는 스타 연주자나 쉬운 음악이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진은숙과 베토벤의 음악을 융화시켜 한 번에 들을 수 있도록, 여러 방면의 노력을 기울이면서 음악을 들으며 기대하지 못했던 것을 찾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페스티벌의 방향이다.

※ 2016 통영국제음악제-2016 세계현대음악제의 자세한 공연일정은 본지 Concert Guide(P.139)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III

FOCUS ON 홍콩 뉴 뮤직 앙상블

2008년 설립돼 CNN에 의해 홍콩의 가장 혁신적인 음악단체로 묘사된 홍콩 뉴 뮤직 앙상블은 실내 콘서트, 야외 공연,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이 협력하는 공동 프로젝트를 펼치며 각각의 공연 환경에서 다채로운 조합으로 새로운 공연을 선보이고 있다.

세계현대음악제 일환으로 3월 29일과 30일 양일간 이들이 무대에 올라 전대륙 세계 각국의 현대음악을 연주한다. 이 앙상블이 '혁신적인' 앙상블로 여겨지는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홍콩'이라는 국가를 대표하는 단체이면서도 멤버 구성원을 살펴봤을 때는 이들의 프로그램처럼 여러 나라를 아우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바이올리니스트 김은아도 그 중 한명이다. 세계현대음악제에서 열릴 이들의 공연에 앞서, 홍콩 뉴 뮤직 앙상블의 디렉터이자 바이올리니스트인 윌리엄 레인(William Lane) 그리고 멤버 김은아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었다.

먼저 이번 공연에 대한 소개를 부탁한다.

우리는 총 3개의 교육적인 프로그램들을 이틀에 걸쳐 통영에서 선보인다. 우리가 콘서트에서 연주할 여섯 개의 작품은 ISCM의 위원회에 의해 선택됐다. 그들은 애니 후아신 셰, 장마리 랑스, 우에다 리타, 벨라주 호르바트, 닉 로스, 라민타 세르크슈니테 등의 작품을 선택했는데, 우리는 스카이프나 전화를 이용해 이 작곡가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연주를 준비했다.

그리고 두개의 작품은 직접 골랐는데, 하나는 피에르 불레즈의 작품으로, 그는 올해 세상을 떠났다. 스위스의 루체른 페스티벌 아카데미에서 세 번 그와 함께 작업을 했는데, 정말 좋았던 경험으로 남아있다. 이번 콘서트에서 그의 소규모 실내악 작품을 연주하는데, 그를 기리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나머지 작품은 홍콩의 조이스 탱의 곡으로, 2013년 홍콩에서 열린 한국전통공연예술협회(Korean Traditional Performing Arts Foundation)에 의해 주최된 '이리랑, 새로운 물결'이라는 축제에서 연주했고, 한국에서는 초연이다.

홍콩 뉴 뮤직 앙상블이라는 팀의 큰 특징은 무엇인가?

홍콩 뉴 뮤직 앙상블은 아직 7년밖에 안된 아주 젊은 앙상블이다. 때때로 초등학교처럼 여겨지기도 하지

만, 우리 주변의 세계들과 각각의 무엇들을 알아가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리의 앙상블 사운드는 성장해 가고 있다. 그러나 내 생각에는 7년이라는 세월은 우리의 특징을 나타내기엔 너무 짧다. 우리는 홍콩의 음악적인 특징을 위한 새로운 페러다임을 재정립하기 위해 음악적 모험을 즐긴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다. 바라건대, 우리는 강한 예술적인 상태와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높은 수준의 음악을 만들어내갈 것이다.

우리 팀의 핵심은 열정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우리 놀랍게도 다양하면서도 서로 다른 상태를 지니고 있다. 나는 이런 차이점 안에서 우리가 단결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현대음악이 한국에서 인기를 얻게 된 건 얼마 되지 않았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현대음악을 더 즐길 수 있을까?

'인기'라는 말은 매우 어려운 단어이다. 현대 클래식 음악은 홍콩에서 절대 인기 있지 않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과거와 새로운 음악을 연관시킬 수 있을지, 그래서 우리가 청중에게 역사적인 레퍼런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종류의 음악들이 사람들의 삶에 적절히 어울릴 수 있게 할 지 생각하고 도전한다. 그것은 우리의 확고한 신념이기도하며, 이런 것들이 잘 프로그래밍 된다면, 현대 아시아 문화에 새로운 음악이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홍콩 뉴 뮤직 앙상블의 목표는 무엇인가?

우리는 여러 가지 목표를 갖고 있다! 먼저 우리의 모토는 '삶에서의 음악'이다. 우리는 홍콩과 중국에서 21세기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나가는 혁신적인 그룹이다. 나는 우리의 음악이 삶과 일상에 관련되어 나타나게 되기를 바란다.

홍콩뉴뮤직앙상블



윌리엄 레인





김은아

New Music! New Ensemble! 바이올리니스트 김은아

서울예고 및 한예종 음악원을 졸업하고 켈른 국립음대에서 자카르 브론을, 만하임 음대에서 발레리 그라도프를 사사하며 최고연주자 과정을 마친 바이올리니스트 김은아는 이후 켈른 음대에서 실내악 과정 학위를 취득했고, 국내로 돌아와 수원시향 수석을 역임하고 한예종을 비롯해 경희대·건국대·예원·서울예고 등에 출강해 후학들을 지도하며 활동을 이어나갔다. 그런 그녀가 몇 해 전 가족들과 함께 홍콩으로 건너가 그 곳을 기반으로 연주를 펼쳤다. HK 시티 챔버 오케스트라에서 4년 동안 함께 했으며, 홍콩 아츠 페스티벌(Hong Kong Arts Festival), 르 프렌치 메이(Le French May), 홍콩 챔버 뮤직 소사이어티(Hong Kong Chamber Music Society) 등 여러 페스티벌에서 연주를 펼친 그녀는 그 밖에도 지난 1월에는 홍콩 인터내셔널 챔버 뮤직 페스티벌에서 청중의 이해를 돕고자 특정 실내악곡을 분석해 연주하는 토크앤콘서트에도 출연하며 홍콩 청중과 긴밀한 공감을 펼쳤다. 이번 한국에서 함께 무대에 오를 홍콩 뉴 뮤직 앙상블과는 더 오랜 시간 함께 한 김은아. 그 밖에 대만계 영국 출신 피아니스트 에블린 쉑(Evelyn Chang)과 북경음악원 교수진으로 있는 첼리스트 주 무(Zhu Mu)와 함께 트리오 모리스트(Trio Morisot)로도 활동하고 있는 그녀가 오랜만에 국내무대로 돌아와 그동안 체득한 가장 뜨거운 현대 음악을 홍콩 뉴 뮤직 앙상블을 통해 드러낸다.

“홍콩은 우선 다양성이 존재하는 곳입니다. 클래식 연주자들도 국적이 다양하고, 문화도 섞여있다 보니 서로의 마인드, 문화, 정서 등에 관대하고, 오픈되어 있죠. 바쁘고 빨리 발전하고 진행되는 한국에 비해 여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즐겁게 연주자들과 소통하고 감상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말처럼 다문화가 공존하는 홍콩이기에 오랜 전통을 갖고 있는 클래식 음악 또한 새롭고 다채로운 색깔의 옷을 입는다. 그녀가 펼쳤던 토크앤콘서트도 그 옷 중 하나이고, 그 밖에도 놀라울 정도로 혁신적인 무대들이 홍콩에서는 허락되고 있었다.

“클래식 연주자라도 연극을 기획하고 접목해 올리기도 합니다. 또 홍콩이란 곳이 지역적으로 워낙 작아서 큰 홀이 많지 않기 때문에 살롱 콘서트가 발달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모이는 곳이면 어떤 형태로든 연주회가 열리지요. 토크 콘서트가 많아진 한국처럼 이곳에서도 연주전에 청중과 작품에 대해 나누는 시간들이 비교적 많은 편인데,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가 공존해 있다 보니 익숙하지 않았던 음악이나 문화,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 이해관계에서도 좀 유연해진 것 같다는 김은아는 이번 무대 또한 열린 소통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연주에서도 작곡가들의 곡에 대한 배경 설명이 있을 예정이에요. 현대음악을 연주

할 때의 연주자들은 실존해 있는 작곡가와 직접 컨택을 할 수 있어서 곡의 이해가 좀 더 쉬워지죠. 그러나 청중입장에서는 짧은 곡 설명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죠. 물론 청중의 이해를 돕게끔 연주를 잘 해야 하는 것이 연주자들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작곡가들이 중점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음악적 색채나 주제 등에 관심을 갖고 보면 더 즐거울 거예요. 현대음악 특성상 특이한 연주기법, 효과음 등을 찾아보시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 음악제에서 홍콩 작곡가 조이스 탕의 〈Reflections on Arirang〉을 연주하게 된 것이 가장 기대 됩니다.”

4월과 11월, 세 차례 예정되어 있는 홍콩에서의 리사이틀을 비롯해 5월에는 체코 프라하에서 현대음악 연주를, 홍콩 르 프렌치 메이 페스티벌에서 프랑스 작품들로 피아노 삼중주를 펼치는 그녀는 11월, ‘Brahms and Friendship, Brahms And Loyalty’라는 타이틀 아래 브람스, 요하임, 클라라 슈만의 작품을 들고 오랜만에 한국에서 리사이틀에 오를 예정이다. 여러 가지 상황들로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국내 활동을 이번 통영국제음악제를 시작으로 11월과 내년 4월의 리사이틀로 이어 나간다. 가장 먼저 홍콩 뉴 뮤직 앙상블과 함께 새롭고 혁신적인 무대를 통해 오랜만에 국내에 모습을 드러낼 김은아. 새로운 옷을 입은 그녀의 음악에 모두들 귀 기울여보자. ☺

글 | 정소연